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22 소비욕 : 유하의 '오징어'



▶한줄 요약
유하는 시 '오징어'를 통해 유혹을 의심하라고 조언한다. 독자분들이 성찰의 빛을 밝혀 소비와 무소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세우길 기대한다.

욕망의 등불, 집어등

몇 해 전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에서 집어등(集魚燈)을 본 적이 있다. 제주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등불에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아이에게 집어등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 주는 100개의 달과 같았다.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아이의 마음을 보듬고 싶었던 제주 어른들은 태풍이 몰려오는데도 여러 배들을 동원해서 등불을 환히 밝힌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를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아마도 그 안에서 '사람'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드라마의 이미지와 달리 현실에서 집어등은 밤중에 오징어나 고등어, 갈치 등을 잡기 위해 밝혀 놓은 불빛일 뿐이다. 글자 그대로 물고기[魚]가 모일[集] 수 있도록 켜 놓은 등(燈)이다.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특성을 이용해서 인간이 놓은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그 덫에 걸리면, 물고기는 꼼짝없이 생을 마감한다. 어부에게 불빛 바다는 가족들을 위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이 집어등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읽어 낸 시인이 있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란 시집과 영화로 유명한 유하 시인이다. 그는 이 책에 실린 '오징어'란 시를 통해 찬란하게 펼쳐진 모든 불빛을 의심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광명이기 때문이다. 마치 집어등이 오징어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인의 지적처럼 어쩌면 우리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수많은 홈쇼핑 광고라는 집어등의 유혹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과연 우리는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유하는 시인이자 영화감독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평소 영화와 문학을 좋아하고 조예 또한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 그는 1988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한다. 1991년에는 앞서 언급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를 출간하고 대중에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상징인 압구정동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욕망을 그린 시집이다.

"시인은 정치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 성적 욕망이 뒤엉켜 타락한 산업 사회의 실상을, 그것에 가장 밀접한 리듬과 언어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 줌과 동시에 꼬집고 비틀고 희화화시켜 날카롭게 풍자한다."

출판사에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1993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시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으로 데뷔까지 한다. 당시 최민수와 홍학표라는 인기 스타가 주연으로 활약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고 만다. 그는 2002년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발표하고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다룬 이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고 사회적인 반향도 크게 일으켰다.

이후에도 유하는 시인보다는 계속 영화감독으로 활약한다. 고교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먹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말죽거리 잔혹사'와 조직 폭력배 이야기를 다룬 '비열한 거리'도 그의 작품이다. 2008년 발표한 사극 '쌍화점' 역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흥행에 성공했다. 2015년에는 1970년대 강남개발 이야기를 담은 '강남 1970'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유하가 영화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다.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후에도 〈세상의 모든 저녁〉을 비롯해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천일마화〉 등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1996년에도 〈세운 상가 키드의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우창 문학평론가의 지적처럼 유하는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표현하는 감성적이고도 지성적인 시인"이었다.

오늘의 시 '오징어'는 앞서 말한 자본주의 시대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유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비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이 만든 상품을 고객이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과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인은 현대인의 소비문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시를 통해 그 속내를 읽어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 인간의 욕망 보인 유하 시
모든 유혹의 광명 의심하라 조언
자기 성찰 통해 소비 철학 정립해야

"눈앞의 저 빛! / 찬란한 저 빛! / 그러나 / 저건 죽음이다 / 의심하라 / 모오든 광명을!"

소비욕에서 벗어나는 길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홈쇼핑이 TV에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가게에 가지 않고 전화로 주문만 해도 되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놀라웠다. 가격 또한 비교적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곤 했다. 등산복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쇼호스트가 "앞으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결국 전화기를 들게 됐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더니, 어느 학인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라고 반응하는 것이었다. 당시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홈쇼핑 중독이었다. 이를 알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게 됐고 오래지 않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샀던 각종 운동기구는 결국 옷걸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아마 지금도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한 러닝머신 위에 바지와 점퍼 등이 걸려 있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대 우리들 일상의 모습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화려한 홈쇼핑 광고는 유하 시인이 지적한 눈앞의 찬란한 빛이 아니었나 싶다. 비록 죽음은 아니었지만 유혹의 집어등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소비한 것이다. 물론 주문한 상품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낀 잠깐의 기쁨은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고 돌아보게 된다. 아무래도 좋은 물건을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다는 말에 걸려든 것 같다. 오징어가 집어등에 유혹돼 그물에 걸려든 것처럼.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시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광명을 의심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한글을 파괴해서 '모오든'이라는 형용사를 동원하고 있다. 나를 유혹하는 TV 광고를 비롯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네온사인, 백화점의 불빛 등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다. 저 빛들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의심하다 보면 적어도 그물에 잡힌 오징어 신세는 면할 것 같다.

시인은 의심이라고 했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다름이 없다. 저 물건들이 과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지 돌아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을 유명하게 만든 〈무소유〉란 책에 실린 구절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 법정 스님의 한마디다. 20여 년 전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에 꽂혀 지금까지 실천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탁기 없이 사는 것이다. 물론 이 물건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수행이라 생각하고 현실에서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찾아 낸 방법이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주변의 소리도 있고 두꺼운 겨울 외투나 이불 빨래를 할 때면 세탁기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또한 수행이라 여기면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다.

이처럼 세탁기는 안 쓰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그렇게 사 댔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던가. 물론 처음 등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끌어들이는 홈쇼핑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모든 유혹의 광명을 의심하라는 시인의 지적이 울림 있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생산과 투자, 고용 등이 잘 이뤄지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소비의 대상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낯선 곳을 찾아 여행하고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 형태다. 학자들에 따르면, 물건을 소유해서 느끼는 것보다 여행이나 공연 관람 등 시·공간에 소비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한다.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해석이다.

유하의 '오징어'를 통해 집어등으로 달려드는 일만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어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심의 빛, 성찰의 빛을 밝혀야 한다. 오늘의 종교와 인문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혜의 등이 켜지면, 소비와 무소유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